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대학이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점심은 보통 카페테리아에서 먹는데 싸운 점심을 먹어도 되고 사먹어도 됩니다. 카페가 있어서 자주 사먹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학기중이라 학생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주에는 같은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만족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 날 듣기 테스트 보고 반이 6개로 나뉘었습니다. 분반 기준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반은 한국인 반, 일본인 반 이었는데 어떤 반은 한국인 2명인 곳도 있었습니다. 같은 반인 친구들과는 정말 많이 친해지는데 다른 반 친구들과는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교제는 바인더를 나누어 주는데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커버가 있는 document 파일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널은 총 3번 썼고,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숙제는 별로 없고,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수업은 9시 - 12시, 1시 - 3시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액티비티가 많아서 수업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수업이 재밌었고 시간도 빨리 갔습니다. 둘째 주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kayaking 할 때는 워터레깅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다리 외에는 장난치지 않는 이상 안젓습니다. Whistler는 반팔에 걸 옷 하나 챙겨가면 딱 좋습니다. 기본적인 비용은 없지만 사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야외활동 있으면 점심은 보통 사먹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제가 있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고 마지막 출국하는 날만 비가 왔습니다. 긴팔은 두개, 겹 옷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반팔만 입어도 충분한 날씨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홈리스가 정말 많습니다. 거리에서 담배, 마리화나도 정말 많이 피웁니다. 홈리스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눈도 마주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통금 시간만 맞춰서 들어간다면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홈스테이 정말 좋았고 만족했습니다. 가기 전에 메일을 통해서 지켜야 할 규칙과 챙겨가야 할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홈스테이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홈스테이에서 불만이 있다면 바로 호스트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피스에 말하세요. 오피스가 전적으로 학생편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피스에 계속 말해야 합니다. 홈스테이로 마음 고생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꼭 호스트와 오피스에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하루 세끼를 홈스테이에서 제공하는게 규칙입니다. 아침은 주로 요거트와 빵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를 싸주셨습니다. 카페테리아에 팀호튼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아이스캡이라는 음료가 맛있어서 매일 사먹었고, 터키 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맛있어서 점심에 몇 번 먹었습니다. 또 팀호튼 옆에 주방에서 점심을 팔아서 몇 번 사먹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나가서 사먹었습니다. 밖에서 사먹으면 한 끼에 팁, 세금 포함해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식비가 한국에 비해 비싸지만 밖에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통학은 홈스테이 집에 따라서 걸어서 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sky train을 이용했습니다. 중간에 갈아타야해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교통비는 compass monthly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처럼 한 번 탈 때마다 비용이 차감 되는게 아니라서 한 달동안 1 zone 내에서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평일 6시 반 이후, 주말에는 모든 zone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딱히 zone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 6시 반 이전에 2, 3 zone에 가고 싶으면 충전하면 되는데 최소 금액이 5달러 입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70만원	
선물&기념품	약 70만원	
합계	약 14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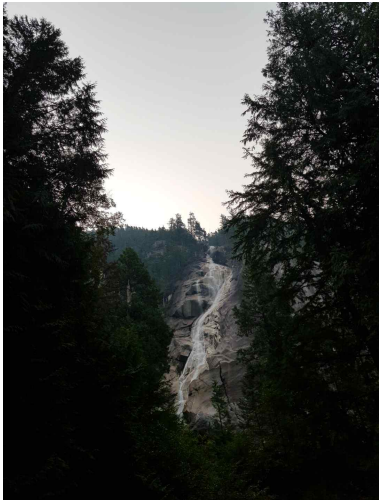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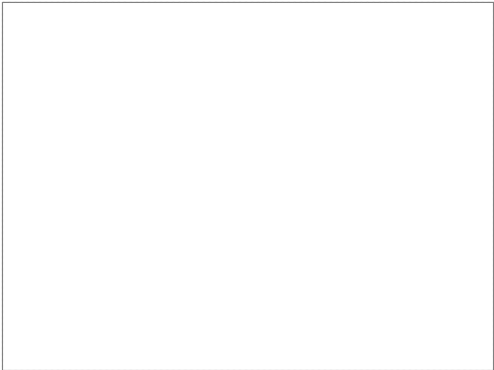
유심은 꼭 한국에서 사서 가세요. 제가 산 건 데이터 무제한, 한국으로 전화 무제한이라서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sky train이 지하로 들어가면 통신이 안되는 것 빼고는 문제 없었습니다. 체크인을 미리 웹으로 할 수 있다면 하고 가는게 많이 편합니다. 호스트 가족과 미리 메일을 많이 하고 간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제공하는지, 집에서 슬리퍼를 신는지 등등 집마다 다른 점이 많으니 사전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가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다른 것은 화장실 사용법인데 샤워를 10분 내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화장실 물기 없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홈메이트와 둘이서만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서 편했습니다. 옷은 긴팔 위주로 가져갔다가 후회 많이 했습니다. 반팔만 가져가고 긴팔은 캐나다에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본인이 뭘 사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주로 평일 저녁과 주말 점심, 저녁을 밖에서 해결해서 많이 나왔지만 홈스테이에서만 먹는다면 식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울렛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많이 저렴해서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 동안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하고 왔기 때문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시차 적응 외에는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고 모두가 친절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문법에 맞게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말을 많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영어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 생각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쓸 일이 없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린 캐년	샤넌 폭포
	
빅토리아 의회	빅토리아 가는 페리에서
	
캐나다 플레이스	그랜빌 아일랜드